

# 1등급 3% 뿐…‘역대급 불수능’ 영어가 당락 가른다

등급컷 미달 ‘속출’ … 1994년 수능 도입 후 1등급 비율 최저  
국어·수학 표준점수 격차 커…정시 ‘눈치작전’ 더 치열할 듯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점 결과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 3.11%에 그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도 영어 못지 않게 어렵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불수능’으로 드러나 영어와 국어가 대입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임시 전문기관은 4일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공개한 올해 수능 체점 결과에 대해 “대학수시모집에서 영어 때문에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속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능 체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였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보다도 1.6%p 떨어진 수치다.

장동술(수완고 전학부장)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은 “영어 등급컷을 못채운 수험생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능에서 영어 절대 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불수능”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선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특정 과목

에서 1등급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2025학년도 수능까지 1등급 비율 최저는 2024학년도 4.71%였다. 당시 일부 대학에서는 등급컷을 충족하지 못해 미달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 영어가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상위권에도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수험생이 수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수가 수시에서 대거 불합격하면 정시모집 경쟁은 그만한 더 치열해진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영어의 1등급 비율은 1994년 수능시행 이래 전과목을 통틀어 가장 낮다”며 “영어가 수시는 물론 정시 모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어도 대입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작년 수능(139점) 대비 무려 8점이나 올랐다. ‘불국어’로 평가된 2024학년도(150점)와 비교하면 3점 낮은 수준이다.

표준점수원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

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전체 응시생 중 자신이 속한 상대적 서열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반대로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도 작년 1055명에서 올해 26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국어처럼 상대평가인 수학과의 표준점수 격차가 매우 커졌다는데 점이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썼다. 평이했던 지난해(140점)보다도 1점 낮은 수치다.

올해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특히 대입 정시모집에 국어 성적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 수학 139점으로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면서 “수학에서 100점을 맞았더라도 국어 100점을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임시전문가들은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은 성적 표를 받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내 등급을 기준으로 위 아래 등급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또한 대학별로 반영비율과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당신을 보고 있어요” 제석산 구름다리 CCTV 가동

광주 남구, 경찰 연동 24시간 통합관제센터…사고 예방 기대

추락 사건이 잇따랐던 광주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 24시간 광주시 통합관제센터, 경찰과 연동되는 CCTV 6대가 가동을 시작했다.

광주시 남구는 4일부터 제석산 구름다리 일대 CCTV 6대를 설치하고 광주시 관제센터와 연동을 시작, 관제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CTV는 6대는 구름다리 인근 3개 기둥에 1~3 대씩 복수로 배치됐다. 각 기둥에는 비상벨도 설치돼 사고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

도록 했다.

남구는 24시간 CCTV 관제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늘릴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구조당국의 대응 속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지난 1999년 도로 개설 과정에서 등산로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로, 하단 차도와 30여m 높이 위에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8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남구는 지난 2020년에는 다리 난간 높이를 기존 1.2m에서 2m로 높이고 다리 양쪽의 난간 상단부에 손으로 잡기 어렵도록 한 ‘롤리’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그 이후로도 사고가 이어졌다.

남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을 통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에는 추락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추락방지망(안전 그물망·상단 1322m<sup>2</sup>, 하단 548m<sup>2</sup> 규모)을 설치했다. 남구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름다리에 조명, 경관시설 등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 국토부, 지역 관광산업 피해 실태 조사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고사 위기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이 붕괴됐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28일 6면)에 구체적인 지역 현황을 분석 및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12·29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꾸리고 지역 관광산업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피해지역의 기초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참사로 인해 발생한 직·간

## 주말 낮부터 추위 풀려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다 주말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2~4도, 최고 8~11도)보다 낮지만 오후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어와 주말 동안 낮 기온이 10~17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3도, 낮 최고기온은 5~9도를 보이고,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1도, 낮 최고기온은 10~14도가 예상된다.

7일은 일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이지만, 눈이 내리거나 강추위 없이 온화하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년 광주고보(현 광주일보)에 입학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가했다.

1930년에는 투옥 중인 학우들을 위해 시험을 거부하고 퇴교하는 ‘백지 투쟁’을 주도하다 퇴학

민족·민주·통일운동가 이기홍 선생 이장 추천 위원회는 오는 6일 낮 12시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5·18 구묘지)에서 이기홍 선생 안장식을 염수한다고 4일 밝혔다.

추진위는 안장식에 앞서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 내 광주학생운동기념탑에서 추모식도 열 예정이다.

이 선생은 1912년 완도에서 태어났으며, 192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아이 키우기 좋은 남원 / 삶의 기준을 높여주는 복지 남원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남원

제275회 정례회 일정 안내 : 2025. 11. 17.(월) ~ 12. 17.(수)

(자세한 의사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